

정읍시, 200만 관광도시 건설 '총력전'

내장호·문화광장·용산호 잇는 전국 최고 '토탈랜드' 조성 100억원 투입 실내형 어드벤처 복합놀이시설도 3월 개장

정읍시가 '200만 관광도시 건설'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사계절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내장호와 문화광장, 용산호를 아우르는 내장산 토탈랜드를 조성해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단지를 조성한다.

시는 이를 위해 월영습지와 솔티쇼 생태관광단지 조성사업, 용산호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어드벤처 복합놀이시설 등에 주력한다.

특히 내장산문화광장을 사계절 토탈 관광 핵심 거점으로서의 육성을 위해 실내형 가족중심 어드벤처 복합놀이시설 조성에 주력한다.

이 놀이시설은 오는 3월 개장한다.

또 5년간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아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는 도시문화생태계를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법정 문화도시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계절 축제의 도시로 도약하는 주축돌이 될 '라벤더 축제'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이 축제를 위해 구룡동 약 33만㎡ 부지에 약 9만9000㎡ 규모의 라벤더를 활용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조성하고 있다.

이 축제는 오는 6월 개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게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봄에는 벚꽃, 여름엔



정읍 단풍단지 조성 조감도.

라벤더, 가을엔 구절초와 단풍, 겨울엔 빛 축제를 통해 사계절 향기와 매력을 발산하는 정읍을 가꾸어 나가겠다"며 "정읍에서 자고 머물면서 소비하고 가는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해 200만 관광 시대를 만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시, 교정시설 유치 지역민 관심

사매·주생면 등 4개 후보지 중 2곳 법무부 제시

남원시가 교도소 등 교정시설 유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교도소 입지를 두고 지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법무부에서 자체 공모를 통해 확정된 교도소 후보지를 제시할 계획이다.

현재 사매·주생·대산면, 왕정동 총 4곳이 후보지 신청을 위한 주민 동의 절차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다.

시는 지역 사회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교정시설 유치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2곳가량으로 압축한 자체 후보지를 올 상반기 중 법무부에 제시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관련 업무협약도 추진한다.

또 시는 다음달 중 전체 주민설명회를

열어 교정시설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유발 효과와 추진 계획 등을 시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외부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도 묻는다.

남원에 교정시설이 들어서면 교도관 등 상주인력의 전입에 따른 인구 증가, 지역 식자재의 수요자 급식, 면회객의 인근 식당 이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남원시는 지난 2015년 신성마을을 교정시설 건립 후보지로 내세워 유치 활동을 벌였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정읍 첨단산단 입주 바이러스 전문기업

코로나바이러스 효능 제어제 개발 추진

전염성 저해 제품 출시 준비

정읍 첨단산단 내 입주한 바이러스R&D전문기업인 바이오젠(주) (대표 김영철)은 코로나바이러스 중 PED(전염성 설사병) 코로나바이러스에 효능을 가진 천연성분의 후보소재를 활용해 치료에 대한 효능 확인 및 제어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사태로 주목받은 코로나바이러스는 인간에게 감기 등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조류에게 발생하는 감염성 기관지염 바이러스 등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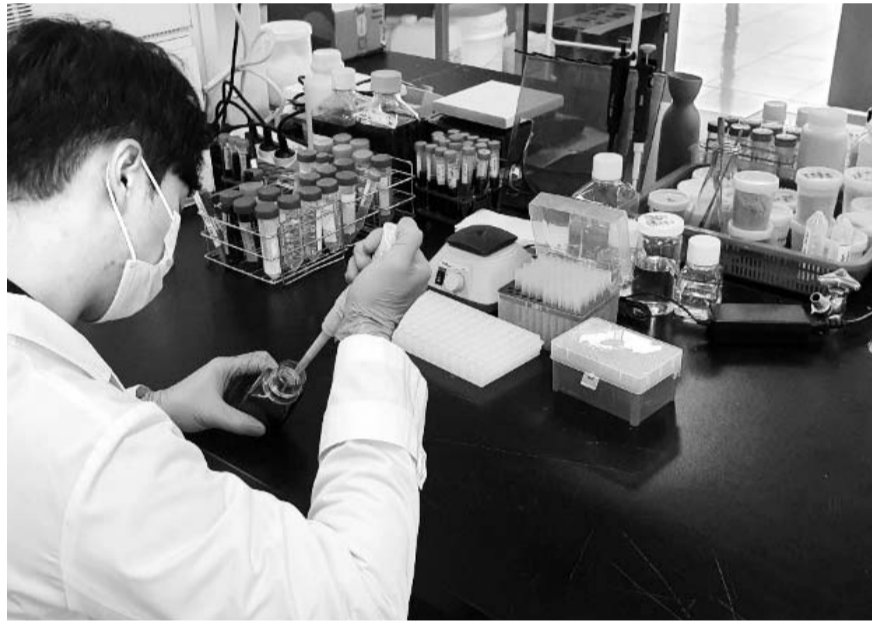
우한 폐렴의 코로나바이러스는 기존 6종의 코로나바이러스와는 성질이 달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로 정의됐으며 7번째 인체 감염 코로나바이러스

로 보고됐다.

이 신종 바이러스는 사람 간 전염이 되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으나 치료할 백신이나 치료제가 따로 없는 상태다.

이우송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바이오젠과 공동연구를 통해 돼지 유행성 설사바이러스(PEDV) 치료 천연소재를 개발했고 이를 활용해 동물의약품 추진을 위한 자료를 확보했다"며 "경제성 분석을 통해 액상 및 분말 타입의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젠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공동연구로 PED 코로나바이러스를 제어하는 천연성분의 후보소재 개발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책과제를 수행했으며, 제작된 후보소재를 활용해 바이러스의 증상



바이오젠 연구원이 코로나바이러스 중 PED(전염성 설사병) 코로나바이러스에 효능을 가진 천연성분의 후보소재 연구를 위해 실험을 하고 있다.

을 완화, 전파를 저해효능의 시제품을 개발했다.

또 실험실과 농가에서 실시된 효력평가에서 PED 코로나바이러스 제어에 뛰어난 효능을 보였으며 PED 바이러스 저해 효능을 가진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군, 체납 상·하수도 요금 특별 징수

2월중 100만원 이상 체납 21건

고창군은 2월 한 달 동안 체납 상·하수도요금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본격 단속에 나선다.

고창군 지난해 12월말 기준 체납액은 2억114만원으로 이번 일제징리기간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 21건 4300만원에 대해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체납징수반을 구성해 체납 세대를 방문 또는 안내전화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상시 운영되는 체납징수반은 수도요금을 3회 이상 체납 시 징수처분(단수)을 강화하게 된다.

또 징수처분(단수) 후에도 요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유 부동산을 압류 처분하고,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이 없을 시 예금 압류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압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군의 상수도 요금은 전북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며 "체납 요금으로 인한 재정의 악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군민들의 성숙한 납부 의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세입자의 상수도 사용료 체납으로 인해 건물주 등 소유자가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임대차 계약 시 수도 명의를 세입자로 변경하고 세입자의 체납여부를 세심히 챙기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창군은 상수도 검침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 정확한 상수도 요금 검침과 함께 요금 납부 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문자 고지, 이차 정산제 등 다양한 요금 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익산시, 보훈회관 건립 속도 낸다

2월 중 착공 11월 준공 목표...광복회 등 9개 단체 입주

익산시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예우를 위한 보훈회관 건립에 속도를 낸다.

익산시에 따르면 36억3000만원을 투입해 신동 일원에 보훈회관을 건립한다.

옛 복일동사무소 부지에 들어서는 보훈회관은 연면적 945㎡에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다.

시는 보훈단체들이 사용하던 옛 복일동사무소가 건축된지 40여년이 지나 노후화돼 안전사고 등의 우려에 따라 보훈회관을 신축하게 됐다.

또 이 공간을 익산지역 9개 보훈단체 전체가 활용하지 못하고 5개 단체가 사용하

고 있어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보훈회관을 마련하게 됐다.

시는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지방재정투자 심사와 기본·실시설계 등을 거쳤다.

시는 2월 중 시공업체를 선정,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훈회관이 건립되면 광복회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등 9개 단체가 모두 입주하게 된다.

익산지역에는 9개 단체 3000여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다.

시는 보훈회관 건립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고 지역민의 애국심을 향상시킬 상징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기존 회관이 노후화돼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보훈회관 건립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지역에 산재한 보훈단체들이 한 공간에 입주하도록 해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군산항·장항항 폭풍해일 침수 방지시설 준공

군산해수청, 310억원 투입 해망동 수협 인근 등에 설치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군산항과 장항항의 항만구역 및 배후지역에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310억원이 투입돼 군산 연안여객부두부터 해망동 수협 어판장 인근까지 7.9km, 충남 서천군 장항 연수조선소부터 장암지하차도 인근까지 3.1km에 대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태풍의 발생 빈도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폭풍해일에 의한 자연재해를 선제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침수방지시설은 조위, 폭풍해일고, 해수면 상승, 월파고 등을 고려해 계획 높이를 산정했고 장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은 이용 차량 및 주민 동선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방호시설(방호벽, 방호문, 차수매트 등)이 배치됐다.

군산해수청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작동 훈련을 유지관리지침서에 따라 실시할 방침이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